검은 숲 플러스 에너지 공동체

버스로 이동하는 반나절 프로그램

프라이부르크 인근 지역의 원자력발전소 건설에 대한 시민들의 반발은 지역 사회에서의 대안 에너지에 대한 관심과 사회 참여를 불러일으키는 도화선이 되었습니다. 오늘날 농촌 지역의 많은 공동체들은 목재 펠릿, 바이오가스, 풍력 에너지와 태양열, 수력 에너지 등과 같은 재생 에너지 사용을 권장하고 지향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여러분은 재생에너지를 통한 자체 전기 생산율 300 %를 달성하는 선구적인 플러스 에너지 공동체를 방문할 것입니다.



공식 파트너:

GREENCITY FREIBURG

- 우드칩 난방기와 대형 태양열 패널을 설치한 농장 방문
- 주민 자체 투자 풍력 발전기 방문.
 각 풍력 발전기는 900-2000 가구의
 전기를 책임지고 있습니다.
- 바이오가스 시설이 있는 80 헥타르 크기의 농장 방문. 농장 바이오가스 시설은 매년 100 만 와트 이상의 전기와 20 가구, 초등학교와 수영장이 딸린 지역 요양원을 위한 난방 원료를 생산합니다. 또한 세 개의 태양열 패널 지붕은 최대 50kw 전력 생산이 가능합니다.
- 방문자의 특성 및 기호에 따라 유서 깊은 물레방앗간에서의 수제 검은 숲 샌드위치가 제공됩니다.

소요시간: 4 시간 (간식시간 포함 5 시간)

참가인원: 최대 25 명이동 수단: 버스 가격: 530 유로

포함 사항: 강연자, 기획

불포함 사항: 교통비, 점심 식사



